의안 번호	131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류성국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류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

발의연월일 : 2026. 10. 21.

발 의 의 원 : 류성국・감규상・곽은정・김원일・문순규 박영주・박해정・박현재・배명갑・변보미 서명일・이우완・이원주・지상록・진형익 의원(15명)

1. 제안 이유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현 창원)에서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시민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신체제 종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쟁취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음

❍ 부마민주항쟁은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 헌법 전문은 4・19혁명 등 일부 민주화운동만을 명시하고 있고, 부마민주항쟁은 명문화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국민 저항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함

2. 주요 내용

❍ 국회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는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진보당 대표, 사회민주당 대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문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10월 18일 마산으로 확산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에 맞서 시민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다.

당시 유신체제 아래에서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조차 빼앗긴 상태였다. 부마의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위수령이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거리로 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함성은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쟁취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아직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헌법 조문 앞에 위치하는 공포문으로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그 헌법사적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는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수록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6일

창 원 시 의 회